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이명박 서울시장

“盧대통령 과거와 싸우다 미래 희생시켜”

경제 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대건설 CEO(최고경영자) 출신이자, 서울시정을 4년간 이끌었던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날 말 퇴임하는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입지를 마치 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박근혜 의원과 대권 후보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일보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정치철학과 비전, 향후 정국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서울시청 3층 접견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여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집권은 결국 한국 사회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만으로 미래에 대해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한나라당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독선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렇지 않다. 우선 청계천 공사를 예를 들겠다. 당시 22만 명의 상인들이 반대했다.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4천200명이 넘는 만남을 가졌다. 결국 청계천 공사가 완성된 후 반대하던 상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패를 줬다. 또한 온 세계가 '서울의 행정을 배워라'고 평가하는데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비판이라고 본다.

“독선적” 평가는 정치적 비판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론을 지지, 대통령이 되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성장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나 보수나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경제가 위축되어 일자리가 없고 저성장할 때는 성장 정책을 쓰는 게 맞다. 그러나 성장이 안정된 속에서는 분배를 위주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양극화가 상당히 된 사회에서는 성장 위주로 해서 분배를 소홀히 한다든가, 분배를 위주로 해서 성장을 소홀히 하기보다는 성장을 위주로 하되 분배도 소홀히 하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개인적인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보수적 대북 관계가 예상되는데.

▲북한 문제는 인도주의적으로 생각한다. 당장 굶어 죽어가는 동족이 있어 인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북한의 개방을 유도, 경제성장을 시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참석한 북한 인사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된다고 발언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북한도 대한민국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영남 출신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지역감정에 대한 해결책은.

▲지역감정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선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해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개인소득이 빨리 2만~3만 달러가 되면 해결된다. 호남도, 영남도 다 잘살게 되면 호남과 영남사람이 다를 필요도, 서울 올라야 필요도 없다.

/정리=임동욱 서울정치팀장 tuim@kwangju.co.kr /사진=고경석 사진부장 ksgo@kwangju.co.kr



이명박의 사람들

정·경제·문화·학·문화계 등 인맥 촘촘 이재오·김문수 의원등 한나라당 '기반'

이명박 서울시장의 인적 네트워크는 광범위하다. 현대건설에 몸담았던 시절부터 맺은 경제계 인맥은 물론 92년 정계에 입문한 뒤 갖춘 정계 인맥도 단단하다. 여기에 서울시장 취임 이후 맺어온 사회, 문화, 학계 인사 등과의 인맥도 촘촘하게 얽혀있다는 평이다.

우선 이 시장의 고향(경북 포항) 후배인 이훈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정무팀을 이끌고 있으며, 그 아래 정태근 정무부시장이 뒤를 바치고 있다.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정무담당 국장급 윤상진 정무비서관도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정개발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만수 전 재경부 차관과 300여명의 교수들이 소속된 정책자문교수단장을 맡고 있는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도 이 시장의 핵심 인맥으로 꼽히고 있다.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문화계 창구로 통하고 있으며, 김진홍 두레교회 목사와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은 종교계의 대표적 친 이명박 인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시장의 당내 기반은 이재오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계동, 김문수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정두언 의원과 이상득 의원도 친 이명박계로 불리고 있다. '이저모' 등 이 시장의 팬클럽도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만남사람 = 오수승 정치부장

-경제를 살릴 것 같은 지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데.

▲경제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점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 같다. 대부분의 국민이 나를 재벌회사 회장 출신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노점상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출신이다. CEO를 일찌감치 한 셈이다(웃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 실업자들의 심정을 나같이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에서 국내 경제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기업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신뢰가 없으니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결국 피해는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입게 됐다. 특히 참여정부는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든 상황이 됐다.

“與 선거 참패 국민들의 심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여론이 국민에게 희망을 못 준 것 같다. 희망이 없는데도 경제적 현실도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지가 철회된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결과,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에서 국민의 심판이 있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우선 국민을 위한 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이 잘 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잘못 전해진 것이다. 한나라당이 잘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국민은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과 정부가 싫어서 한나라당을 찍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반사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꾸준히 한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평가한다면.

▲서울시장 입장이어서 평가할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국가의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해 희망을 갖게 하여야 하는데 현안에 너무 집착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특히 너무 과거에 얽매인 점이 아쉽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과거 역사와 너무 싸우다 보니 그 희생은 미래가 된 것이다.

미래가 희생되니까 국민이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 청산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기초가 되긴 하지만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거기서 멈춰 버리면 뒤떨어진다.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치권에서는 정계개편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당이 없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집권한 여당이 집권 중에 정계개편을 해서 당의 구조가 바뀐 경우는 없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을) 흩어시키고 다시 만드는 것은 지금의 시대 환경과 맞지 않는다. 다수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변화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당을 깨고 다시 만드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특히 아직 (대선까지는) 2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런 방법(정계개편)은 선거 전략적 측면이라는 의구심이 있다.

-고건 전 총리가 '희망연대' 발족을 선언하며 정계개편론의 중심에 섰는데.

▲고건 전 총리가 '희망연대' 발족을 선언하며 정계개편론의 중심에 섰는데.

본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전국적 정당으로서 호남에 대한 관심을 선거 때만이 아니고 경상시에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 영남당 한계 벗어나”

-그러나 호남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일시적으로 바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호남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를 보였던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 민주화 과정에서 김 전 대통령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호남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호남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화를 이루는 데 중심에 섰지만 한편으로는 산업화 과정 등 경제적 측면에서 손해를 본 점도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룬 만큼 호남도 경제의 중심에 서야 할 필연적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호남도 이제 정치적인 생

“고건 前총리 이념적으로 한나라와 비슷 성장우선 정책으로 분배 문제 해결해야 호남이 국가경제의 중심될 필연적 시기”

▲전임 (서울)시장인 고건 전 총리는 우선 원만한 분배다. 또한 여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본다. 또한 전체적 이념의 테두리는 한나라당과 그리 동떨어지지 않았다. 고건 전 총리가 희망연대를 정당으로 만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시민단체 성격으로 본다.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與 정계개편은 선거전략”

-한나라당이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영남보다 수도권에서 지지를 더 받는 등 충청권, 수도권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반영하면 영남당의 한계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호남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미지가 굳어 있어서 이걸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본다.

-개인 문제도 정계개편론에 잠복해 있다. 고건 전 총리는 4년 중임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4년 중임제)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권 말기에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면 대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대권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헌법 개정에 대한 공약을 해서 국민에게 평가를 받고 이후 전문가와의 협력 등 여러 절차를 통해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 '경선 불복'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한나라당 사람이냐 아전인수 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권 교체는 앞두고 (경선 불복으로) 당이 분열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전남대학교 BK21사업단(팀) 전임인력 모집

전남대학교는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제2단계 BK21사업에 대형 13개, 소형(핵심) 14개의 사업단(팀)이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90억씩 7년 동안 지원받을 예정이며, 각 사업단(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수한 계약교수(BK21 전담, 비전임),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연번	학과(부)	사업단명	단장	연락처	국고지원금(백만원)	모집인원
1	의과대학	의생명인력양성사업단	이현철	062-530-4000	652	0명
2	치과대학	고령화시대 구강조직 재생 서비스인력양성사업단	오원만	062-220-4400	535	0명
3	경영학과	n비즈 컨버전스 사업단	정성창	062-530-1439	248	0명
4	인류학과	CAA-Plus 전문연구 인력 양성 사업단	김명혜	062-530-2694	320	0명
5	사학과	21세기 리더형 역사학 교육 사업단	김봉중	062-530-3252	334	0명
6	철학과	연대와 소통을 위한 철학교육 사업단	조운호	062-530-3232	366	0명
7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기계시스템사업단	최병철	062-530-1681	492	0명
8	전자컴퓨터공학부	유비쿼터스 정보기전사업단	이귀상	062-530-3425	990	0명
9	응용화학공학부	기능성 나노 신화학 소재 사업단	조동연	062-530-1892	558	0명
10	수학통계학부	수리계산 및 생명의학통계 사업단	곽민규	062-530-3340	318	0명
11	물리학과	광전자 고급인력 양성사업단	방윤규	062-530-3363	380	0명
12	화학과	분자과학 사업단	남계춘	062-530-3377	394	0명
13	생명과학 기술학부/생물학과	바이오기능제어 인력양성사업단	채호준	062-530-3398	1,184	0명
전체 13 개 사업단				합계	6,771	

학과(부)	사업팀명	팀장	연락처	국고지원금(백만원)	모집인원
1	경영학부	회계투명성과 가치경영 사업팀	윤순석	062-530-1474	120
2	유아교육과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영유아교육 인력양성 연구팀	지성애	062-530-2362	113
3	체육학과	고령화시대의 노인건강 증진과 대시중추군 예방을 위한 운동과학 처방 지도자 육성 사업팀	김동희	062-530-2560	120
4	세계한민족 네트워크협동과정	세계적인 네트워크 개발 인력양성 사업팀	임재완	062-530-2624	92
5	일어일문학과	서남권 해안 개발에 대비한 대일 전문인력양성사업팀	이덕배	062-530-3212	120
6	중어중문학과	광주·전남 다중국 문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팀	이등연	062-530-3203	120
7	환경공학과	친환경 핵심 소재 및 공정 개발 사업팀	김승재	062-530-1857	219
8	전기공학과	친환경 전기에너지 저장·운용 연구인력 양성 사업팀	구할본	062-530-1746	231
9	응용생물공학부 분자생명공학	지역 생명공학 인력의 세계화 사업팀	한옥수	062-530-2163	200
10	동물자원학부	동물위생인사 제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팀	강민중	062-530-2113	185
11	산림자원조경학부 임산과학전공	목질 자원의 고도이용 사업팀	김윤수	062-530-2093	137
12	수의학과	바이오치료 산업 인력 양성 사업팀	한홍재	062-530-2831	245
13	농화학과	친환경 생물농업소재 연구 사업팀	심재한	062-530-2135	192
14	산업공학과	지역 성장동력 제조시스템의 최적 설계 및 운용 인력양성 사업팀	이재열	062-530-1782	149
전체 14 개 사업팀				합계	2,243